

# 정헌율 익산시장 시정 청사진은?

### 북한-중국-러시아-유럽 잇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 추진 강조 일자리 3만5천개 창출과 함께 청년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립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역을 출발, 북한-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또 다시 강조했다.

정 시장은 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인 교통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4년 동안의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민선 6기 핵심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에도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산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동북아 식품산업 수도 건설을 앞당기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3, 4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일자리 3만 5천개를 창출과 함께 청년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농정 선도 도시를 조성 ▲도시민주화를 통한 시민 중심도시 실현 ▲출산과 보육, 맞춤형



정 시장은 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인 교통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4년 동안의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형 명품 교육도시 조성 ▲문화관광 융성도시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저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 지역 곳곳을 누비며 민생의 생생한 현장을 보고 들었다"며 "살맛나는 익산을 만들어 달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던 시민의 간절한 눈빛을 마음에 품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시장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우병희기자

##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홍보지원단' 운영 지역주민 대상 고용위기 지원 프로그램 홍보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이석)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위기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홍보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이번 달은 수송동 등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식 홍보 차량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 및 약별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민선 7기 공약은 크게 △도시의 상생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농정혁신과 선진화, △도시 민주화를 통한 시민 중심 도시, △출산과 보육, 맞춤형 명품 교육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의 6개 분야로 나뉜다.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유라시아 철도 거점 도시 건설과 관련된 △KTX

팅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A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기 존보다 더욱 따뜻한 환경 친화적인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개소한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군산시 기관,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을 방문해 어려움에 처한 군산시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센터의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취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심리상담, 직업훈련교육, 창업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A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욱 따뜻한 환경 친화적인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개소한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군산시 기관,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을 방문해 어려움에 처한 군산시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센터의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취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심리상담, 직업훈련교육, 창업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수의계약 금액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익산시가 7월부터 수의계약 금액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모든 업체에게 수주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수의계약 금액을 당초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익산시는 각종 계약 시 인건비 상승으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추정가격보다 하향조정, 1,000만원 이하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흐름과 발발추고 관내 업체 등의 지속적 상향조정 요구를 반영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

이처럼 익산시가 이달부터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기로 하자 대부분 업체들은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균형감을 잃을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적다보니 업체들이 남는 게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수주를 포기하려고까지 했다"면서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 경기를 감안해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 제8대 군산시의회 첫 임시회 개회... 의장단 선출

8대 군산시의회가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장단 선출과 함께 환한 출발을 일렷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1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반기 의장에는 6선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완(48. 아 선거구)의원이 단독 출마해 찬반투표결과 찬성 22표 반대 13표로 과반수를 획득해 당선됐으며 부의장은 같은 당 소속 4선의 김경구(67. 가 선거구)의원이 단독 출마해 찬성 21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과반수를 획득해 선출됐다.

김경구 의장은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김경구 의장 서동완 부의장

며 "앞으로 2년 동안 30만 군산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열린 의정을 펼쳐나갈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이어 서동완 부의장은 "김경구 의장을 잘 보필해 동료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시장을 잘 살피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자'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태풍영향에 따른 재난안전대책에 만전을 대비하기 위해 당초 3일 오후 3시 예정됐던 개원식을 취소했으며 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을 뽑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 상임위 구성·위원장 선출

지난 2일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3일에는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구성과 함께 위원장을 선출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 조남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유재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 박철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태열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투표 결과 조남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조남석 의원 유재구 의원 박철원 의원 김태열 의원

14표,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은 21표,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21표,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23표를 각각 얻어 당선됐다.

피선된 각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만 익산시민과 익산시를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선배·동료의원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8대 전반기 익산시의회는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등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익산=우병희기자

## 익산시, 민선 7기 이행공약사업 검토보고회

익산시는 3일 정헌율 익산시장 주재로 민선 7기에 이행할 익산시의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약 이행 부서장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공약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민선 7기 공약은 크게 △도시의 상생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농정혁신과 선진화, △도시 민주화를 통한 시민 중심 도시, △출산과 보육, 맞춤형 명품 교육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의 6개 분야로 나뉜다.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유라시아 철도 거점 도시 건설과 관련된 △KTX

역세권 복합타운 조성, △새만금 배후 국제물류유통단지 조성,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 및 2단계 사업 착수, △제3·4일반산업단지와 합영농공단지 분양,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분야 민선 6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신청사 건립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정),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산업, △말 산업 육성사업 특구 지정 추진 등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은 4년 동안 우리시를 이끌어 갈 핵심 사업들이며, 특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과 한 약속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이행 부서에서는 임기 내 추진 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우병희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 재난취약지역 찾아 긴급 안전점검

정헌율 익산시장은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 호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2일 취임식을 취소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물비료 생산 공장을 찾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장삼마을은 마을주민의 집단 피부암발병으로 환경부에 청원,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과 건강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 진행 중이다.

이날 정 시장은 폭우 속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 (유)금강농산 사업장 현장을 돌이보면서 "폭우로 인해 공장 부지 바닥에 쌓여있는 비료 생산원료가 비와 섞여 침출수가 유출되어 저수지 등 주변 환경오염이 걱정된다"며 "사업장 내 밀폐화 및 침출수 처리방안 관련 대책을 세워 한 방울도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